

## 개구리 왕자와 천장의 눈

임영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에는 도덕성을 떠받치는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고 믿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엿볼 수 있다. 커다란 방에 이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자.

방 중앙의 작은 테이블 위에 아름답고 멋지고 난해한 예술 작품이 놓여 있다. 다채로운 색깔의 온갖 손잡이와 황금빛 지렛대, 반짝이는 크리스털, 은빛의 공, 귀여운 종, 스파이크가 박힌 바퀴, 붉은 바퀴살, 부서지기 쉬운 나뭇가지, 거미집처럼 얽힌 철사 등이 상상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사이키델릭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서 정말로 화려해 보인다. 그런데 이 작품은 손상되기 쉬운

데다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필 주커먼, 『종교 없는 삶』, 43~4쪽.)

이제 이 방에 아홉 살짜리 어린이를 들여보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이 작품에 손 대지 않고 잘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미리 당부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선 처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처벌과 보상으로 아이의 마음을 다잡는 방법이다. “방에는 너 말고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예술 작품을 건드리면 안 돼. 아주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데다 하나뿐인 작품이거든. 또한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으로 교장 선생님이 널 살펴볼 거야. 선생님의 눈이 내내 널 지켜볼 거야. 만약에 네가 작품에 손을 대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단단히 화가 날거야. 그래서 네가 방에서 나오면 큰 벌을 내릴 거야. 하지만 네가 작품을 건드리지 않고 방에서 나오면 네게 멋진 상을 주실 거야.”

천장에 난 작은 구멍으로 지켜보는 “교장 선생님”에서 하느님을 쉽게 떠올릴 것이다. 하느님이 늘 지켜보는 가운데 벌을 피하고 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지어낸 짧은 이야기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시나리오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길 듯하다. 사실, 필 주커먼이 여러 무신론자를 인터뷰하면서 들은 이야기 가운데 63세의 소냐라는 여성이 들려준 것이라고 한다.

소냐는 똑같은 상황에서 방으로 들어갈 어린이에게 이렇게 당부할 수 있다고도 한다. 좀 더 세련되고 공감함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방에는 너 말고 아무도 없을 거야. 하지만 예술 작품을 건드리면 안 돼. 아주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데다 하나뿐인 작품이거든. 손을 대

면 사고로 부서지거나 얼룩이 묻을 수도 있어. 작품이 달라질 수도 있지. 작품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면 다른 아이들은 본래의 작품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 물론 네가 작품에 손을 대서 작품이 사고로 망가져도, 우린 널 벌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슬플 거야. 그래서 네가 작품을 건드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

“천장의 구멍”을 통해 지켜보는 신 없이도 얼마든지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무신론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예술 작품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때문에 처벌이나 보상 없이도 도덕적 행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나리오다. 무신론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해피엔딩을 기대하겠지만, 모든 인류 문화에 오랫동안 갖가지 종교가 번성하는 것을 보면 그저 작은 소망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 「개구리 왕자」를 읽으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

종교 현상이 다양한 만큼이나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 또한 다양하다. 곤혹스러운 자연현상이나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또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종교적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불안을 잠재우며 안락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종교가 생겨났다는 설명도 있다. 또 사회질서를 세우거나 도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교가 생겨났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아니라 그저 이성이 잠들어 있어서 그런 미신에 매혹되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설명들이 모두 일리가 있고 종교의 다양한 효과를 잘 설명해 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근본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

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종교의 뿌리가 깊은 만큼, 종교적 심성은 우리 마음에도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떤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전파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에서 종교의 기원을 찾는 학자가 있어 읽어 보았다. 이번 글은 파스칼 보이어가 쓴 『종교, 설명하기』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심리학자이자 인류학자인 파스칼 보이어는 카메룬에서 인류학 현지 조사를 하면서 팡족의 전통 종교를 연구한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우선, 널리 알려진 민담 가운데 「개구리 왕자」를 떠올려 보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자아이들이 개구리와 공주가 뽀뽀하는 장면에서 “아이, 징그러워!” 하며 얼굴을 찌푸리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는 ‘개구리가 왕자였다니, 참 신기한 이야기네.’ 하고 이야기에 끌렸던 것 같다. 그런데 나나 여자아이들이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듣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개구리가 공주가 연못에 빠뜨린 황금 공을 찾아줄 테니 결혼해 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개구리는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처럼 여겨지게 된다. 그 뒤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도 전혀 거부감 없이 스토리를 따라가게 된다.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결혼해 달라고 하고 같이 음식을 먹게 해 달라고 하며 같은 침대에서 잘 수 있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더 이상 개구리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개구리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폴짝폴짝 뛰다든지 피부가 끈적끈적 하다든지 하는 특성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개구리가 뽀뽀하는 장면에서

“아이, 징그러워!” 하는 반응을 보인 것도 당연한 일이다. 여담이지만, 다시 읽어본 그림 형제 판본에서는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일은 늑대든 여우든 온갖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와 민담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 주인공을 사람처럼 여기며 스토리를 따라가는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 (보이어는 이런 우리의 자동 추론 체계를 우리 “의식의 지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추론들이 뇌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 얼굴은 잘 기억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겪는다. 그러나 왜 그런 차이가 생겨나는지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마음체계가 작동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추측할 뿐이다. 똑같은 일이 종교 개념에도 적용될 것이다.)

개구리 왕자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이어는 이렇게 묘사한다.

왕자를 개구리로 변형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개구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일과 목표와 의도를 지니는 일 등을 하는 살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동물로 변형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에 대한 온갖 종류의 추론들을 전개할 수 있다. 당신은 개구리가 공주에 의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주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키스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묘사할 수 있다. (파스칼 보이어, 『종교, 설명하기』, 125~126쪽)

「개구리 왕자」 이야기를 듣거나 읽으며 개구리 왕자를 신처럼 떠받드는 종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개구리 속에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더라도 한 것처럼, 개구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고”,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구리 왕자」를 들으며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추론들과 비슷한 일들이 종교적 대상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예를 든 것이다.

### 종교 개념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종교적 개념이 될 수 있는 생각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고 보이어서 제안한다. 아래 예를 보면서 종교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보자. 이것은 퀴즈가 아니므로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널리 퍼질 만한 종교적 개념이 되는지 생각해 보자. (아래 사례들은 『종교, 설명하기』 2장에 나온 사례들 가운데 일부를 가려 뽑은 것이다.)

- (1) 어떤 사람들은 늙게 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숨 쉬는 것을 멈추어 죽게 되어, 그것으로 끝이다.
- (2) 당신이 특별한 의례용 물건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땅에 부딪힐 때까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 (4) 죽은 사람은 말하지(또는 견지) 않는다.
- (7)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지만, 그리고는 즉시 그것을 잊어버린다.

(11)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전능하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수요일에만 존재한다.

종교는 문화에 따라 워낙 다양하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먼 나라에는 “이 기이한 관념들이 종교적 믿음의 주요 원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보이어에 따르면 이 목록들은 종교 개념으로서 널리 퍼질 만한 좋은 후보는 아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살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이런 후보들은 어떨까?

(21) 하나의 신이 존재한다!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3)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때때로 다른 몸을 갖고 되돌아온다.

(24)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도 주위를 계속 걸어 다닌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27) 우리가 이 조각상에 기도하는 것은, 조각상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목록은 아주 익숙하다. (21)은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일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관념이다. (23)은 불교의 윤회를 말하는 것 같고, (24)는 아이티의 좀비일 테고,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런데 종교적 개념은 익숙하다는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보이어는 말한다. 들어본 적도

없는 낯선 것이라도 종교를 위한 “전도유망한 후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 목록을 살펴보자.

(33) 어떤 사람들은 위장 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을 갖고 있다. 그들이 잠들어 있는 밤중에 그 내장 기관은 멀리 날아간다. 그것은 사람들을 습격해 그들의 피를 마신다.

(35) 어떤 흑단나무는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회상할 수 있다.

(36) 저 너머에 있는 이 산은(저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다. 이 산이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향해 제사 음식을 올린다.

(37) 저 너머에 있는 강은 우리의 수호자이다. 그 강은 사람들이 근친상간을 범했다는 것을 알아내는 순간 거꾸로 흐를 것이다.

이런 목록을 보면 독자들은 기이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33), (35), (36)은 실제로 소수 종족 사이에 퍼져 있는 종교 개념이다. (37)은 보이어가 지어낸 것이지만 충분히 종교 개념이 될 만한 후보라고 한다.

보이어에 따르면, 첫 번째 목록은 종교가 되기에 “나쁜 후보”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목록은 종교가 되기에 “좋은 후보”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첫 번째 목록 가운데 몇 편을 다시 보자.

(1) 어떤 사람들은 늙게 되고, 그리고는 어느 날 숨 쉬는 것을 멈추어 죽게 되어, 그것으로 끝이다.



(2) 당신이 특별한 의례용 물건을 떨어뜨린다면, 그것은 땅에 부딪힐 때까지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4) 죽은 사람은 말하지(또는 건지) 않는다.

이 후보들은 그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바일 뿐이다. 특별할 것 없이 진부하다. 이렇게 진부한 관념이 종교 개념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두 번째 목록에 있는 이 명제들은 어떤가?

(23)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영혼은 때때로 다른 몸을 갖고 되돌아온다.

(27) 우리가 이 조각상에 기도하는 것은, 조각상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 목록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과 많이 다르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도 없고, 물건 앞에서 소원을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 이런 일상의 경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놀랍고 기이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이함”만으로 종교 개념이 될 수 있는지 보이어는 의문을 제기하며, 첫 번째 목록에 나온 다음 예를 살펴보자고 한다.

(11) 오직 하나의 신이 존재할 뿐이다! 그는 전능하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수요일에만 존재한다.

일상적인 경험에서 벗어난 “기이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콘

서트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아니고 수요일에만 존재하는 신이  
니. 사람이든 신이든 “연속적인 존재이다.” 쪽 살아 있던지 그냥 죽어  
있던지 하는 것이다. 수요일에만 존재한다면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유별난 믿음이 널리 퍼질 리는 없다고  
보이어는 말한다.

### 널리 퍼질 만한 종교 개념

그렇다면 보이어가 생각하는 종교 개념, 널리 퍼질 만한 “좋은” 중  
교 개념은 무엇인가?

아래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자.

(35) 어떤 흑단나무는 나무 그늘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회상할 수 있다.

(36) 저 너머에 있는 이 산은(저 산이 아니라 이 산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다. 이 산이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향해 제사음식을 올린다.

흑단나무는 식물의 일종이다. 우리는 풀이든 나무든 식물을 보면  
한눈에 식물임을 알아볼 수 있다. 식물은 동물이나 사람처럼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성장하고 죽는다는 것도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런 식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평소에 뚜렷이 의  
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추론 과정이다.  
식물을 보며 범주적으로 파악하는 우리의 사고 습성은 다른 대상에게

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범주에 따라 세계를 파악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뇌에 내장된 자동 장치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동물에 대해 생각할 때도 동물은 성장하고 죽는다고 여기게 된다. 같은 종의 동물에서는 같은 종의 새끼가 태어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살기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떤 동물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범주적 사고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컵이나 망치 같은 인공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컵이나 망치가 살아 움직인다거나 먹거나 잠잘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보이어나 사람, 동물, 식물, 자연물, 인공물 같은 범주를 존재론적 범주라고 개념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 그에 합당한 기대를 하며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예를 든 흑단나무의 경우는 우리가 식물 범주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위반하고 있다. 나무가 대화를 회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다. 보이어나 따르면 종교 개념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 종교 개념은 존재론적 범주가 낳는 특정한 기대를 위반한다.

둘째, 종교 개념은 그 밖의 다른 기대들은 보존한다.

식물이 대화를 회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식물 범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회상하는 흑단나무는 여전히 식물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특별한 흑단나무도 흙과 물이 필요하고 성장하고 죽는다는 식물인 것은 변함없다.

이런 특성을 보이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한다.

특별한 흑단나무[식물의 모든 특징] + 대화를 회상함

이 공식을 지금까지 든 예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 전지한 신[사람] + 특별한 인지 능력

(23) 환생[사람] + 죽음이 없음 +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몸

(24) 좀비[사람] + 인지 기능이 없음

(27) 말을 경청하는 조각상[도구] + 인지 기능

(33) 날아다니는 내장 기관을 가진 사람[사람] + 별도의 내장 기관

(36) 미식가로서의 산[자연물] + 소화 기능

(37) 수호자로서의 강[자연물] + 근친상간 혐오

여기서 잠시, 유령이나 정령 같은 친숙한 개념에 대해 살펴보자. 유령은 흔히 단단한 벽을 뚫고 지나가는 존재로 여겨진다. 보통의 사람은 벽을 뚫고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에게 기대하는 물리적 속성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이어는 유령이나 정령 같은 개념이 “반직관적 물리적 속성을 지닌 사람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다. 벽을 뚫고 나가는 이런 능력과 별도로 유령이 통상적인 사람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따른다고 지적하며, 갑자기 유령이 당신 집에 나타날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런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라서 당신은 수프 접시에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반드시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전체적인 많은 가정들을 창출한다. 예컨대, 당신이 식사하는 것을 유령이 보았으며, 따라서 당신이 먹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유령이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유령은 아마 당신의 숟가락이 수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으며, 당신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이제 기억할 수 있다.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유령이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유령이 당신에게 식사를 즐기고 있는지를 묻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불안을 일으키는 일이지는 하지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파스칼 보이어, 같은 책, 135~6쪽. 강조는 원문)

강조한 동사에 주목해 보자. 유령은 보고 듣고 알고 있고 기억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일이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유령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 버린다. 그 마음이란 것도 우리 자신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유령뿐만 아니라 대화를 기억하는 흑단나무에 대해서도 음식을 소화하는 산에 대해서도, 마치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실제로 신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우리는 초현실적 존재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한다. 개구리

왕자가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해 버리는 것처럼 유명도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해 버린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개구리나 유령에 대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생겨나는 마음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보이어서 저스틴 배럿의 연구를 소개하며, 전능한 신에게 기독교도들이 바라는 바가 진정 무엇인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병상에 부딪힌 배가 가라앉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릴 것인지 묻는 실험이었다.

- 1) 선체가 부서진 채로 배가 계속 떠 있도록 도와주세요.
- 2) 영하의 바닷물에서의 긴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신체적인 힘을 승객들에게 주세요.
- 3) 다른 배의 선장에게 항로를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 주어서, 선장이 가라앉는 여객선을 발견해 모든 사람을 구조하게 해 주세요.

생각해 보면 전능한 신이라면 이 가운데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면 세 가지 대답이 고르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세 번째 유형의 선택지를 골랐다고 한다. 신자들 대부분은 물리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과정에 개입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을 자신들과 상호 작용하는 사람 비슷한 행위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활성

화되었다고 보이어서 평가한다.

모든 것을 아는 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아는 신이라면 아래 같은 것들도 모두 속속들이 알 것이다.

신은 세상에 있는 모든 냉장고의 내용물을 안다.

신은 작동 중인 모든 기계의 상태를 지각한다.

신은 세상에 있는 각각의 곤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서? 어찌라고?” 하는 반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 시시콜콜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보이어서 아래 같은 진술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말한다.

신은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안다.

신은 당신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안다.

신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안다.

사회적 존재인 우리 인간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한 처지에 따라 시시콜콜해 보이는 앞의 항목들도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훔친 물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신이 냉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라면, 기계에 대해 속속들이 아는 신을 생각할 수 있다. 곤충으로 전염병을 퍼트리려고 한다면, 곤충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신은 의미

를 지닐 수 있다.

보이어에 따르면, 카메룬의 광족 신화에는 창조신에 해당하는 메게베와 은자메가 있다고 한다. 메게베는 자연 세계를 창조한 강력한 신이다. 그를 이어 은자메가 도구와 집 같은 문화적 사물을 창안했고, 동물을 사냥하고 길들이는 법, 작물을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렇게 강력한 업적을 이룬 신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숭배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모든 것을 아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신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에 의해 은자메 신이 “다른 사람에게 은밀히 행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고, 그들이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점” 어렵사리 설득했을 때에야 은자메 신에 대한 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무신론자 소나의 바람과는 달리 “천장의 눈”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이유를 밝히는 일은 인간 의식의 저 너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힘겨운 탐구 없이는 여전히 어려워보인다.

## 참고 도서

필 주커먼, 박윤정 옮기, 『종교 없는 삶』(2014), 판미동, 2018년.

파스칼 보이어, 이창익 옮김, 『종교, 설명하기』(2001), 동녘사이언스, 2015년.

그림 형제, 이해정 편집·해설, 『그림 형제 독일 민담』, 뮤진트리, 2010년. 시더